

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,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3.4.(수) 문화일보, 이주노동자단체 “고흥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·노동력 착취” 폭로

-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광주·전남지역 시민단체는 4일 오전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최근 어업 계절노동자(E-8)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A 씨가 사업주와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노동을 당했다”고 폭로했다.
- 하루 12시간 중노동 불구 월급 고작 23만 원...고용주 등 고소·수사 촉구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단체에 의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,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
- 아울러, 현재 진행되고 있는 「계절노동자 노동·법무부·자치단체 합동점검」(26.1.7, 보도자료 배포 참고)에 고흥군을 추가하여, 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, 브로커에 의한 중간착취 및 선발·알선·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임
- 향후 계절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국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노대윤 (044-202-7739)
			주무관	김혜정 (044-202-7738)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길 (044-202-7528)
			주무관	오성곤 (044-202-7531)

